

# 3분기 경제 성장률 0.1%...역성장 겨우 면했다

### 수출 얼어붙고 설비 투자 위축...건설·민간소비 큰 하락 광주·전남 소비판매·건설수주·수출 다 줄어 침체 지속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분기 기록했던 '역성장'에서는 1분기만에 벗어났지만, 지난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체 GDP 상승세를 이끌어왔던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인 국가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역시 올 3분기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서 경기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5일 한국은행(한은)이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 3분기 실질GDP는 전분기 대비 0.1% 성장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 10월 발표했던 속보치와 같은 수치다. 실질 GDP는 지난해 1분기(0.4%), 2분기(0.6%), 3분기(0.8%), 4분기(0.5%)에 이어 올해 1분기(1.3%)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어 올 2분기에는 전분기 성장률이 너무 컸던 기저효과 등

으로 0.2% 역성장을 기록했고, 3분기 0.1% 성장으로 플러스 전환했지만 여전히 경제 성장률은 부진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반적인 성장률은 속보치와 동일했지만, 수출과 수입이 각각 0.2%포인트(p) 0.1%p 상향 조정됐다. 반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0.8%p, 0.4%p 등 하향 조정됐다.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관련 투자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올 3분기 성장률은 자동차와 화학제품,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감소했다. 자동차·화학제품은 0.2% 감소했고,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 중심으로 3.6% 줄었다. 내수 성장 기여도는 0.8%p로, 항목별로 설비투

자(0.6%p), 정부소비(0.3%p) 등의 증가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건설투자(-0.5%p)와 민간소비(-0.3%p)는 하락했다. 업종별 성장률은 농림어업이 2.4% 증가했다. 농축산업 관련 서비스업은 전 분기보다 3.3% 증가했지만, 어업은 수산어획, 수산양식 모두 줄어 13.3% 감소했다.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실질무역순실은 3분기 기준 14조 2000억원으로 전분기(16조 6000억원) 대비 14.45% 감소했지만, 실질 국외 순수취요소소득은 4조 4000억원에서 9조 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가 경제 성장이 저조한 가운데 광주·전남 역시

올 3분기 소매판매, 건설 수주, 수출 등 대부분 경제 지표가 하락하는 등 침체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광주 지역민들이 고물가 장기화 등으로 소비를 줄이면서, 소매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3.5% 감소했다. 또 건설 수주액 역시 전년 보다 81.6%나 감소한 2833억원을 기록했다. 수출액은 3분기 기준 37억 달러로 21.4% 줄었다. 같은 기간 전남 수출액은 109억 9000만 달러로 2.2% 감소했다. 업종별로 기타 인조플라스틱 및 등 제품(-23.1%), 기타 석유제품(-16.6%), 경유(-12.9%) 등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 aT 먹거리 지수 시상...나주시 대상, 장성·해남군 최우수상

### 화순군 우수상·광산군 장려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지역먹거리 지수' 결과를 발표하고 31개 우수 지자체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지역 먹거리 지수는 각 지역의 먹거리 활성화 등 계획과 관련된 지자체들의 실천 노력 및 확산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로, 지난 2019년부터 5년째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전체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농촌·도농복합형 평가와 69개 자치구 대상 도시형 시범 평가를 함께 진행하고, 31개의 지역 먹거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 농식품부 장관상 대상을 받은 지자체는 나주시, 완주군, 청양군이었다. 특히 나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는데, 먹거리 공급 능가 조직화와 도농 상생 협력 강화 등의 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로 높은 'A등급'은 17개 지자체가 획득했으며, 이 중 세종시, 화성시, 장성군, 해남군, 옥천군 등 5개 지자체가 상위 5개 지자체로 꼽혀 농식품부 장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A등급을 받



은 화순군 등 12개 지자체는 농식품부 장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 도시형 선도지자체로 꼽힌 광주시 광산구는 장려상을 수상했고, 광주시와 전북도는 소속 기초 지자체의 참여 및 성적이 우수해 특별상을 수상했다. aT 집행국 유통이사는 "매년 먹거리지수 평가에 참여하는 지자체 수가 확대되고, 평가 등급도

올라가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스스로 지역먹거리 계획 정책 추진 정도를 진단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한 정책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T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지자체들의 정책 사례집과 지역먹거리 지수 지도를 배포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 광주은행 '함께대출' 100일만에 3200억 매출

### 금융권 최초 토스뱅크와 공동출시

광주은행이 토스뱅크와 함께 금융권 최초로 공동 출시한 '함께대출'이 지난 8월 27일~12월 4일 100일 간 3200억원의 판매 매출을 달성했다. 함께대출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혁신금융상품으로, 광주은행의 현금 유동성과 토스뱅크의 고객 접근성 등 장점들을 합쳐 출시한 개인 신용대출 상품이다. 이를 통해 광주은행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토스뱅크는 운영비용을 줄여 연간 33억원가량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 기간에 매출 3200억원 돌파 배경에는 최저 연 4.75%(2024년 12월 5일, 기준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대출 접근성 완화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함께대출을 통해 광주은행과 토스뱅크는 매일 평균 100여명에게 고객당 3100만원의 대출서비

스를 제공했다. 함께대출 출시 직후 고객권을 분석한 결과, 고객 중 중견업체 및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객 비중이 54%였고, 공무원·대기업·전문직 비중이 40%를 차지했다. 함께대출 이용 고객 연령대는 20~30대가 40%, 40~50대 56%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20~30대 청년층 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3분기말 기준 31.4%인 것을 감안하면 청년층 이용률이 높은 편에 속했다. 박종준 광주은행 부행장은 "함께대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금융당국과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고, 높은 고객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대출 가입 대상은 현재 직장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증빙 연소득 1000만 원 이상인 급여소득자로, 한도는 100만~2억원이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 전남정보문화진흥원,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 전남 6개 시·군...이달 중 공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을 완료하고, 12월부터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2024년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으로 개발된 특화콘텐츠는 영암·화순·해남·여수·나주·순천 등 전남 6개 시·군과 지역 콘텐츠 기업의 협업을 통해 완성됐다. 영암은 월출산 설화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 화순은 운주사의 신비를 담은 미디어아트, 해남은 디노 르네상스(공룡의 재탄생)를 주제로 한 아나몰픽 콘텐츠, 나주는 나주배 생육환경 체험형 콘텐츠, 여수는 금오도의 야간 미디어파사드, 순천은 팔마정신을 주제로 한 ICT융합형 공연 등이다. 전국 최초로 생성형 AI 기술을 애니메이션 제

작에 전면 도입한 영암 월출산 설화 기반 애니메이션 '달마왕자와 월출산 남자'는 영암군과 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운주사의 설화와 신비로운 칠성바위를 주제로 한 화순군의 몰입형 미디어아트는 내년 1월부터 화순군립공사문화관 미디어아트전시실에 전시된다. 해남공룡박물관에서는 쥐라기 시대의 대표 공룡 알로사우루스를 주인공으로 한 아나몰픽 콘텐츠를 선보인다. 나주시에서는 나주배를 주제로 한 어린이들 대상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이며 여수시는 금오도의 구 유송초등학교의 벽면을 활용해 구현한 미디어파사드는 남도의 섬, 바다를 배경으로 옥녀봉 설화를 재해석했다. 순천 팔마정신을 주제로 한 ICT 융합형 뮤지컬 공연 '꿈꾸는 팔'은 지난 11월 성공적으로 선보인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연말정산 간소화 개편 사망 부양가족 원천배제 과다공제 품수 막는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한다. 5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할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소득 금액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가 각종 공제 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소득 기준 초과자 공제와 같이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 A씨는 어머니가 작년 6월 상가를 양도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평소대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했다. 또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어머니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받았다가 연말정산 과다 공제로 안내받았다. 이 밖에 부양가족이 사망했는데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경우도 있다.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C씨는 친분이 있는 종교단체 대표자와 공모해 수수를 주고 회사 동료 수백 명과 함께 실제 기부 없이 수백여 원의 기부금 영수증만 발급받아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부당하게 받아오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취득 등 사실과 다른 소득·세액공제로 세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켜 성실신고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는 점점 대상을 확대해 부당 공제 심리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광주신세계 "소용량 화장품 만나보세요"

### 핸드 밤·향수 등 다양한 제품 선보여

광주신세계가 오는 2025년 트렌드 키워드로 떠오른 '옵니보어(Omnivores)'에 발맞춰, 소용량 화장품들을 선보인다. '트렌드 코리아 2025'는 내년 첫 번째 트렌드로 '옵니보어'를 꼽았다. 광주신세계는 옵니보어의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뜻을 통해 다양한 인기 품목을 접해볼 수 있는 소용량 제품들을 내놨다. <사진> 우선 분관 2층에 자리한 '이슈'에서는 올해 출시한 '엘레오스 아로마틱 핸드 밤'을 엠버 보틀(500ml) 크기 외에도 75ml 소용량으로도 판매한다. 같은 층에 있는 '키엘'에서는 전 세계적 스테디셀러 제품 '얼티미 스트레스 핸드 샴프'를 150ml·75ml 두 종류로 판매한다. 해당 제품은 아보카

도와 참깨 오일을 함유해, 건조한 손에 대한 보습 효과가 뛰어나며, 소용량인 75ml 제품의 판매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0대 고객들을 중심으로 휴대성이 뛰어난 소용량 제품이 선호되고 있는 만큼, 소용량 제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웨덴 향수 브랜드 '바이레드' 역시 소용량 트렌드에 발맞춰 '블랑쉬 핸드크림'을 30ml 소용량으로 판매하고 있다. 블랑쉬 핸드크림은 보습효과 뿐만 아니라 향수 브랜드 제품답게 향기 지속력도 갖췄다는 특징이 있다. 심한성 광주신세계 잡화팀장은 "광주신세계의 다양한 브랜드에서 소용량 인기 제품들을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 중고차 기록부 사고이력·주행 거리 담긴다

중고차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점검기록부)에 현재보다 더 자세한 수리 이력과 주행 거리 정보가 담길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의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정부 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발표한다. 올해 발굴한 경쟁제한적 규제는 22건이다. 정부는 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보와 정확한 주행거리를 기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비트코인 사상 첫 10만달러 돌파...올 초 2배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5일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 선을 돌파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 시간 이날 오전 11시 38분께 10만 달러를 찍었고, 정오 기준 상승 폭을 높여 10만1천55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21일 9만 5000달러부터 9만 8000달러까지 가파르게 치솟은 뒤 잠시 숨 고르기를 했지만, 이날 차기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으로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폴 젠킨스가 지명됐다는 소식이 상승 탄력을 받았다. 지난달 초 7만달러를 밑돌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친(親)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상승세를 탔고 대선 승리 약 한 달 만에 10만달러 선까지 넘어섰다. 미 대선 이후 상승률은 약 45%에 이른다. 올해 초 5만 달러를 밑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100% 넘게 오른 상태다. /연합뉴스

## 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이상거래 감시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비상개업 사태 후 이튿날을 맞아 금감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체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규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11시 38분께 10만 달러를 찍었다. 이 원장은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조그마한 이상 조짐도 빠짐없이 선제적으로 탐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상징후를 보이는 정책·정치테마주에 대해 정밀 분석을 하고, 투자자 피해 우려 시 소비자정보를 발령하는 등 투자자 주의 환기 조치를

하고 당부했다. 그는 금융시장 전문가나 외국인 투자자들과 소통을 강화해 시장 의견을 충분히 청취·수렴하고, 금융회사의 비상 대응계획을 재점검해 필요 사항을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41.85 (-22.15)
↓ 코스닥	670.94 (-6.21)
↓ 금리(국고채 3년)	2.603 (-0.023)
↑ 환율(USD) (오후 5시 55분 기준)	1415.15 (+5.05)